

민주당 “국감 중 야당 압수수색, 사상 초유의 정치탄압”

의원 169명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규탄문’…국감은 재개기로 국민의힘 “민주당, 공무집행 방해…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윤석열 정권의 대야(對野) 전면전 선포로 규정하고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압수수색을 막은 것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당사 앞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검찰과 8시간 가량 대峙했다. 검찰이 철수한 뒤에도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조를 꾸려 밤새 당사를 지켰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한편 현 정권과 검찰을 향해 삽자포화를 가했다.

특히 최측근 인사인 김용 민주당연구원 부원장이 전날 긴급체포됐음에도 ‘침묵’을 지키던 이재명 대표가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의총에서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진실은 명백하다. 함께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의 퇴행을 막자”고 말했다.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용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종근 원내대표는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사상 유례 없는 검찰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무력

화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규탄문’도 냈다.

이들은 “압수수색 시도는 권력의 친위대로 전락한 고삐 풀린 정치검찰의 방종”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출범 5개월 만에 권력 높음에 취해 제멋대로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유일한 정적인 이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 정권은 대한민국 정치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전날 중지했던 국정감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아예 ‘국감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었지만, ‘민생 우선’ 원칙을 견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검찰의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저지한 데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 “이재명 대표의 방탄막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맞서 ‘법집행 방해’와 ‘이재명 지키기’라고 규정하면서 역공에 나선 모양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검찰의 법집행을 민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또 다른 불법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강행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 비대위원장은 “지금 검찰이 벌이고 있는 정당한 법집행은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전방위적으로 살벌하게 자행했던 그런 적폐정산과는 결이 다른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도 반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뭔가 구린 것이 많아서 저렇게 막는구나’ 하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존립 근거조차도 부정하는 일”이

라며 “민주당의 법치주의 부정, 공무집행방해는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엄정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대선 불법자금 1원도 쓴 일 없다”

민주당 긴급 의총…“민생 파탄·북 도발에도 야당 탄압에 권력 소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여의도 당사에 있는 민주당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이 어렵고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평화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야당 탄압에,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소진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선 자금 의혹과 관련, 이 대표는 “만약에 (유동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용 민주당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으로 줬다는 주장이 맞다면 남욱이라는 사람이 작년 가을쯤 귀국할 때 ‘10년 동안 찢렸는데도 씨알 안 먹히더라’라고 인터뷰한 것이 있다”며 “우리가 주고 받은 돈 이런 것은 성남시장이 알게 되면 큰일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내부 녹취록에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다”며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율러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언급했다.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당연구원 부원장을 전날 전격 체포한 뒤 민주당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강한 반발로 불발됐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8월 유 전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를 측으로부터 총 8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재생에너지 사업 강화 전남도 사업본부 확대

전남도가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부서를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열린 도의회 제 36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에너지 공영화 계획”을 묻는 박형대 의원(진보·장흥 1)의 도정 질문에 “재생에너지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할 전문기관 필요성이 높아져 개발공사 내 운영중인 에너지사업처를 재생에너지 사업본부로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기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지역사회와의 갈등, 소득 역의 유출 등의 단점이 제기되는 만큼 전남도는 이같은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가칭 ‘전남에너지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자회사 설립 불허 방안에 따라 개발공사 내 기존 부서를 확대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직접 실행 및 투자 등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자사고 학생 지속 감소…존치 결정 신중해야”

서동용 의원 교육부 자료



윤석열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존치하겠다고 했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높은 학부모 비용 부담 등으로 일부 자사고를 제외하고는 자사고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학년도 전국 35곳 자사고의 모집 정원 대비 입학생 수 비율은 88.6%에 불과했다.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에도 각각 88.2%와 87.3%로 지속적으로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가 모집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의 자사고 18개교 학교가 모집정원의 84.3%만 입학생을 채우고 있었다. 한때 54개까지 지정되었던 자사고는 지속해서 줄어, 현재는 35개교이다. 그러나, 2023년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2개교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33개교로 줄어든다.

이러한 자사고의 지속적인 인기 하락과 관련해서는 높은 학부모 부담이 꼽힌다. 실제 2022학년도 1학기 35개 자사고의 1인당 학부모 부담은 평균 618만 원에 달했다.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반고를 포함한 전체 고교 교육의 질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이, 자사고의 존치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근시안적 정책이 아닌,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상가, 신축부지 매매

1. 대인동 156평, 롯데백화점 옆
신안동 176평, 엄마요양병원 뒤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협의
5. 공동투자 하실분 모심

문의. 010-3605-5000